

# 금융투자산업 동향 및 전망

박 용 린  
금융산업실장



# 목 차

KCMI  
KCMI  
KCMI

---

I. 증권업 전망과 주요 이슈

II. 자산운용업 전망과 주요 이슈

III. 벤처캐피탈 및 PEF 전망과 주요 이슈

---

---

## I. 증권업 전망과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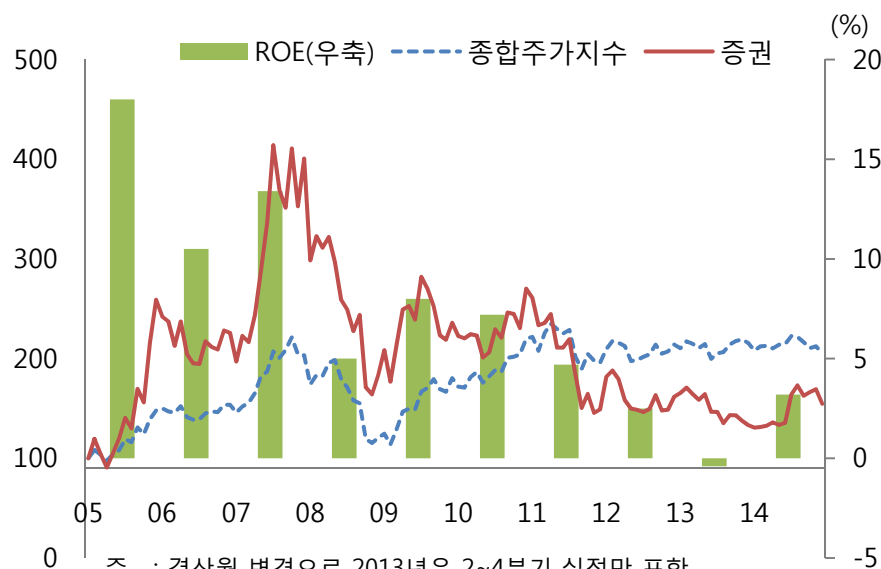
---

# 증권업 추세 및 전망 : 수익성

## ❖ 증권업 ROE는 2014년 하반기 들어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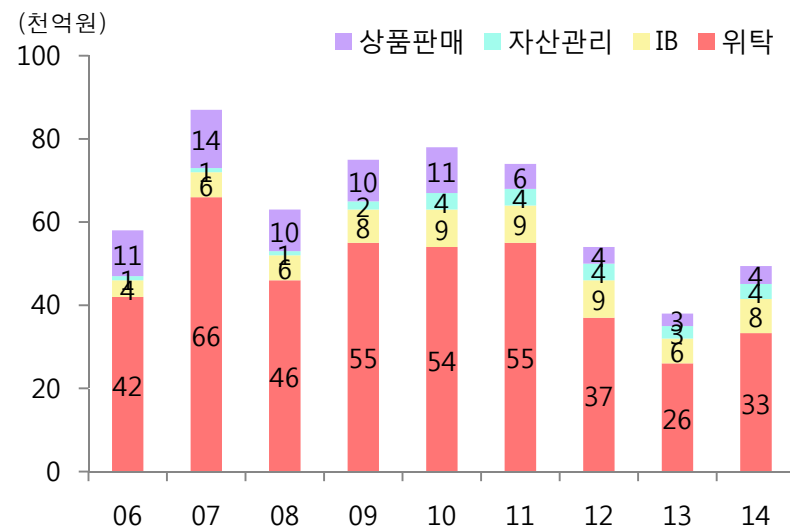
- 인력조정 등을 통한 비용감소 요인에 금리하락으로 인한 채권평가의 등이 더해진 결과
- 핵심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여전히 부진
- 금년에도 비용조정 효과의 지속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

국내 증권사 연도별 ROE 및 증권업 주가 추이



주 : 결산월 변경으로 2013년은 2~4분기 실적만 포함  
2014년은 1~3분기까지의 누적 ROE임  
종합주가지수, 증권지수는 2005.1월=100으로 계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FnGuide

부문별 수수료수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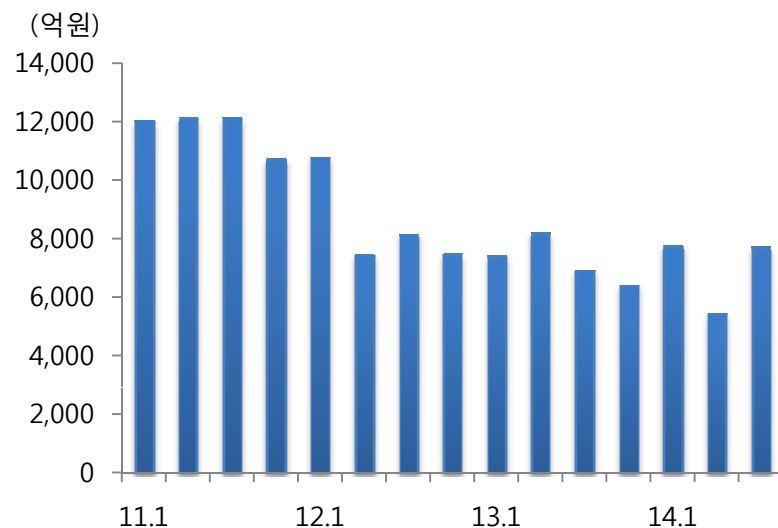
주 : 결산월 변경으로 2013년은 2~4분기 실적만 포함  
2014년 수치는 1~3분기 값을 토대로 한 단순 예측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증권업 추세 및 전망 : 위탁매매

## ❖ 2014년 위탁매매 부문 수익은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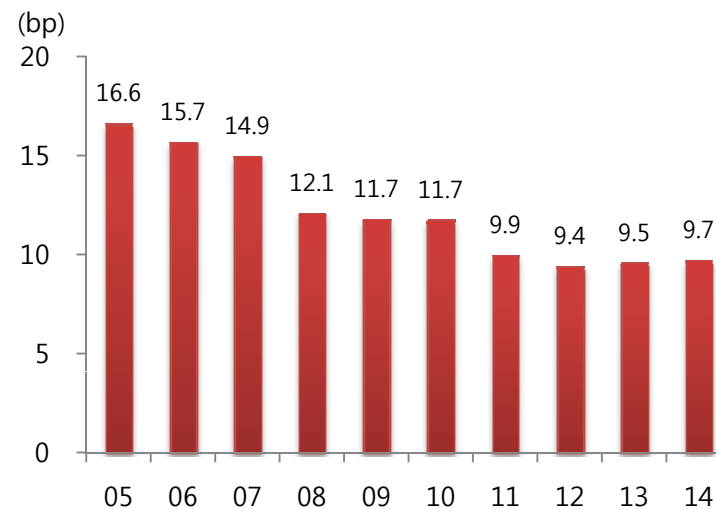
- 위탁매매 부문의 수입 감소추세는 거래대금 감소와 수수료율 하락 등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
- 경쟁 심화로 하락해 온 위탁매매 수수료율은 비용구조상 저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율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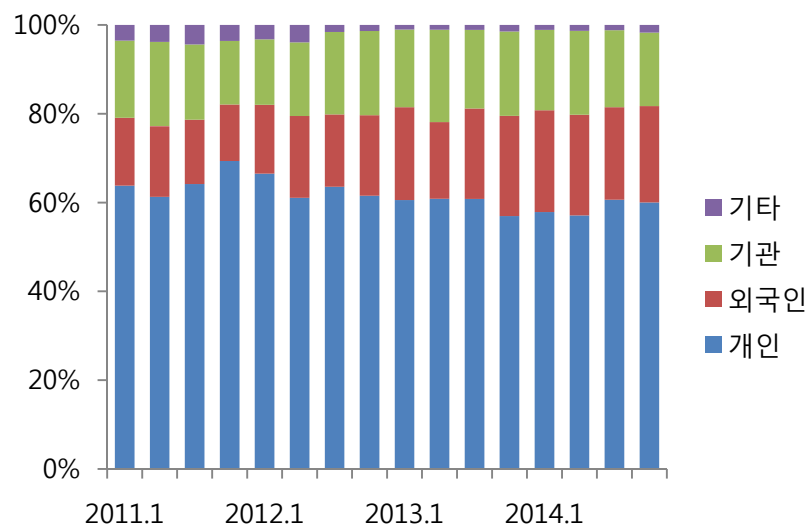
주 : 수수료율 = 지분증권 수수료/지분증권 거래대금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증권업 추세 및 전망 : 위탁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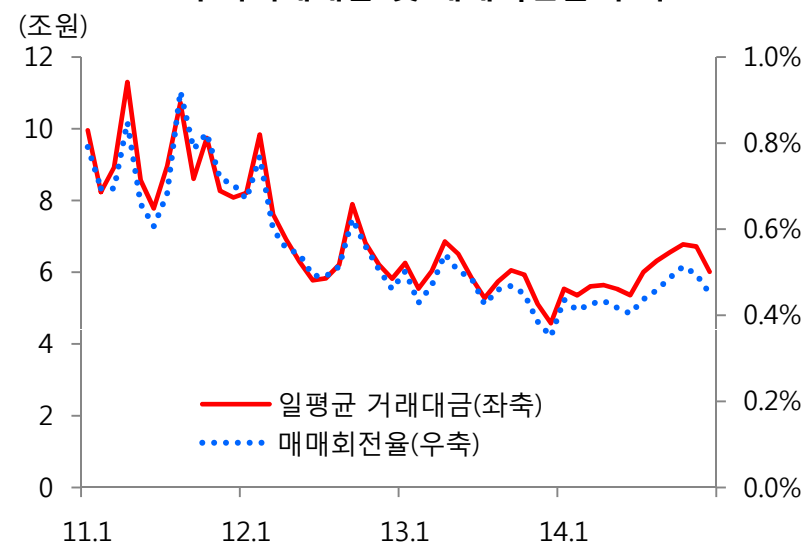
## ❖ 개인매매 비중이 소폭 상승하며 거래대금 및 매매회전율 소폭 상승

- 2014년 전체 주식거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소폭 상승하면서 일평균 주식거래 대금 및 매매회전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및 기업실적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없이는 위탁매매 부문의 위축이 지속될 전망이며 수입원 다변화가 절실

주체별 주식거래비중



주식거래대금 및 매매회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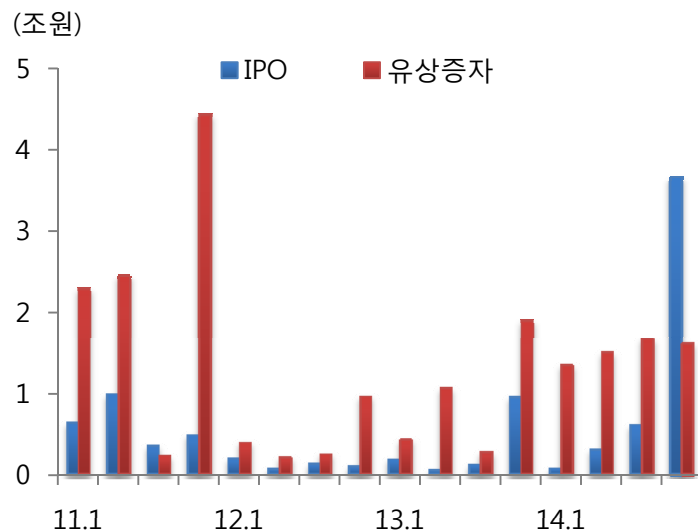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증권업 추세 및 전망 : 투자은행

## ❖ 2014년 하반기 이후 주식/회사채 발행이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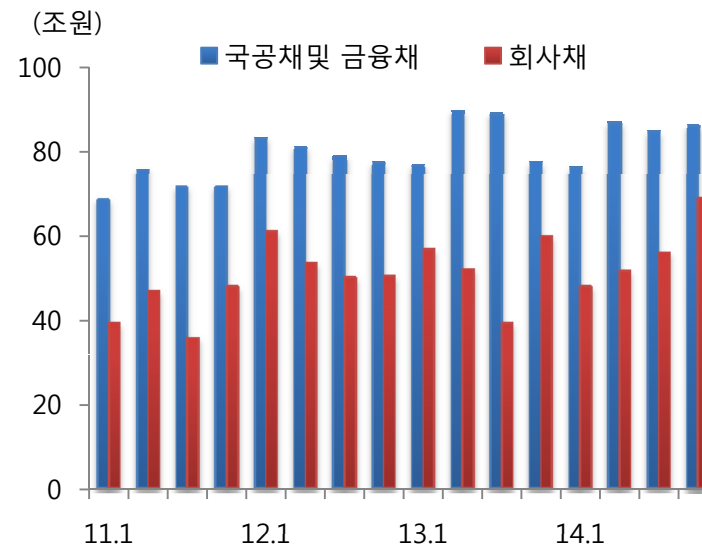
- IPO/유상증자는 정부의 상장활성화 정책과 삼성SDS, 제일모직 등 대형 IPO로 인해 개선
- 회사채 발행은 금리 하락과 더불어 증가하였으나 신용등급에 따른 양극화 현상 지속
- 금년 IPO 시장은 일부 대기업 상장, 게임 및 헬스케어 등 성장업종의 지속적 코스닥 상장이 예상되어 작년의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며, 회사채 시장은 상반기 만기도래분 소화가 관건

국내 주식 발행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 채권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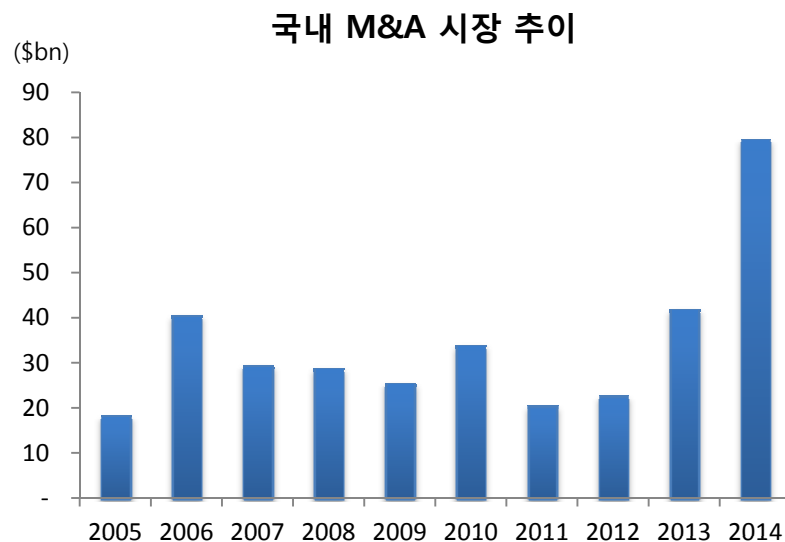


자료: 코스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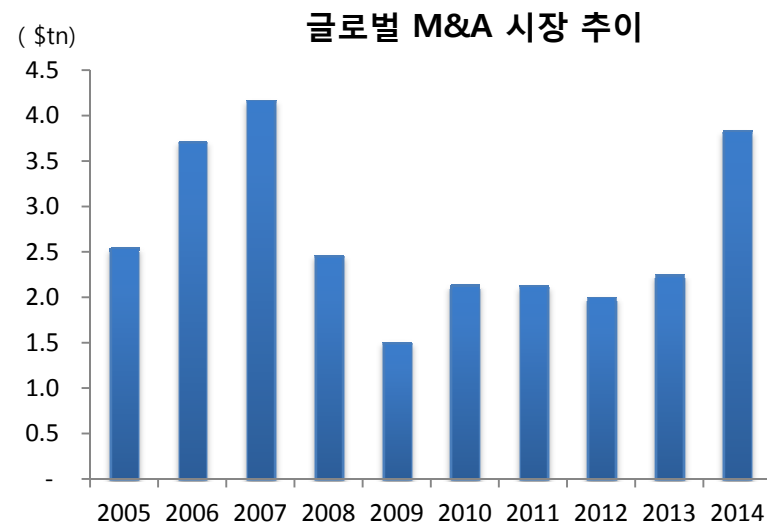
# 증권업 추세 및 전망: 투자은행

## ❖ 2014년 M&A 시장은 대형 거래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

- 삼성 구조조정, OB맥주, 다음·카카오 등 대형 M&A 거래와 PEF의 활발한 투자 활동
- 글로벌 M&A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냄
  - 저금리 /고유동성, 주가상승 등 좋은 여건 속에서 미국과 영국 기업이 M&A거래를 주도
- 금년에도 공기업 민영화, 대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구조 재편, PEF 매물 관련 M&A 매물이 대기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



주: 부동산 인수 포함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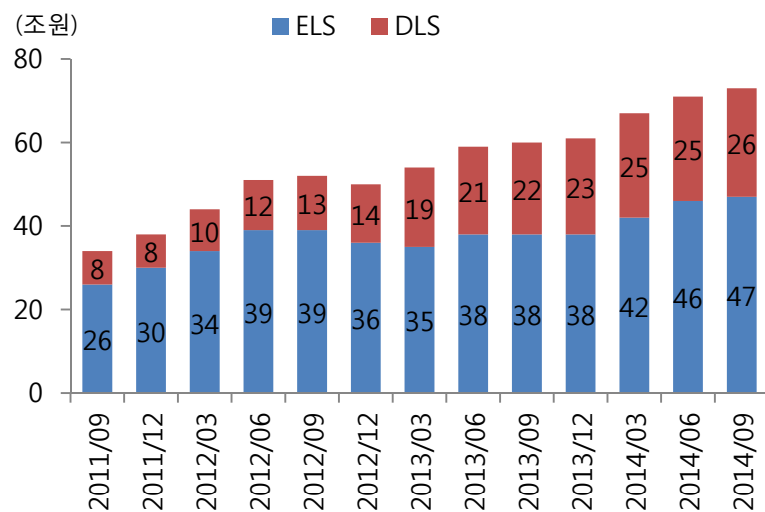


# 증권업 추세 및 전망 : 상품판매 및 자산관리

## ❖ ELS/DLS와 채권형 펀드 판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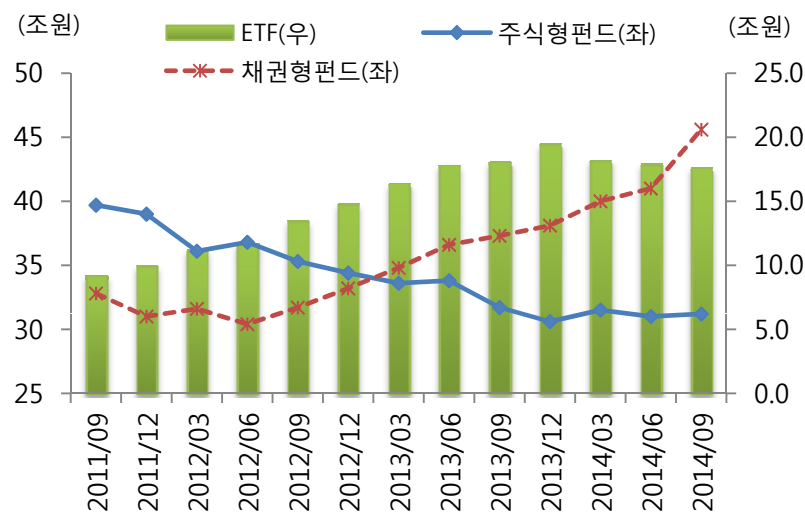
- 2014년 ELS/DLS 판매는 저금리 추세에서 초과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몰리며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채권시장 강세에 따라 채권형 펀드의 판매도 증가
- 반면 주식형 펀드의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ETF 역시 감소세로 전환
-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일부 DLS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지속될 듯

ELS/DLS 발행잔액(미상환잔고)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펀드 유형별 판매 잔액 및 ETF 순자산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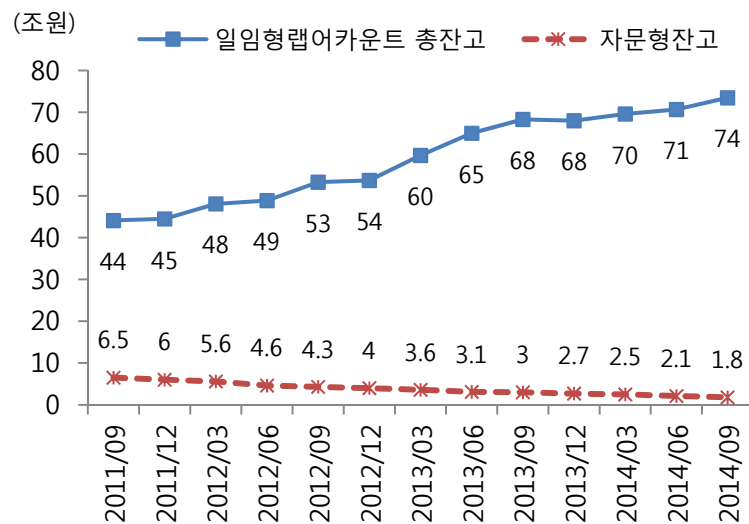
주 : 펀드 판매잔액은 증권회사에 한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 증권업 추세 및 전망 : 상품판매 및 자산관리

## ❖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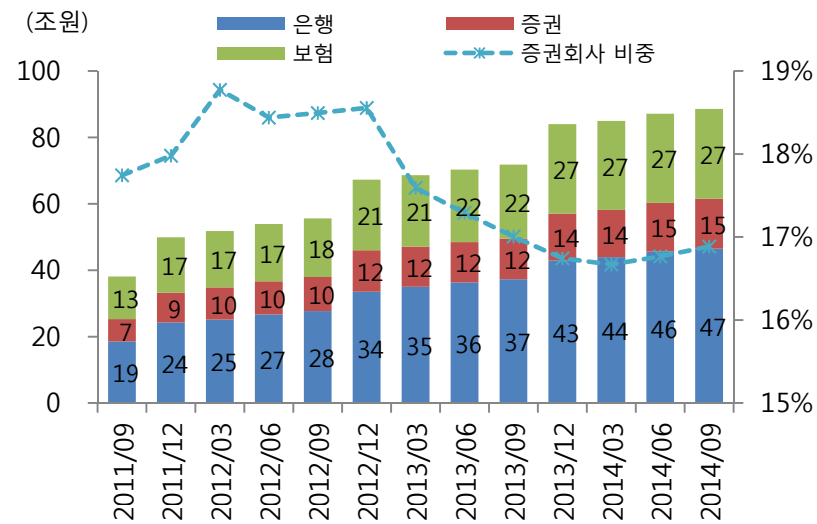
-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소액의 개인들이 주로 투자한 자문형랩의 경우 수익률 하락으로 위축세가 지속
- 한편, 퇴직연금 권역별 적립금 중 증권사 비중은 소폭 상승에 그침
- 기관·연기금 수요를 바탕으로 한 일임시장 증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일임형 랩어카운트 잔고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 권역별 적립금 및 증권회사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2015년 증권업 정책 환경

## ❖ 2014년 발표된 다수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 정책은 향후 증권업 역동성 회복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주식시장 발전방안(금융위 11.26)

- 투자상품 확대, 기관투자자 및 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시장 인프라·제도 정비, 투자자 신뢰 제고
- 증권업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신용공여, 외화차입신고의무 완화

### — 상장활성화 방안 (금융위 4.15)

- 코스닥시장위원회 기능 강화, 보호예수 완화, 신속 이전상장제도 및 상장요건 완화
- 증권사 IB부문의 코넥스 주식 직접투자 허용 등 매수기반의 확충

### — 증권회사 NCR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 4.8)

- 순자본비율 제도 도입 및 적기시정조치 변경
- 증권사 M&A·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시행 (2016년 부터)
-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및 위험값 조정 등

### — M&A 활성화 방안 (기재부 등 7개부처,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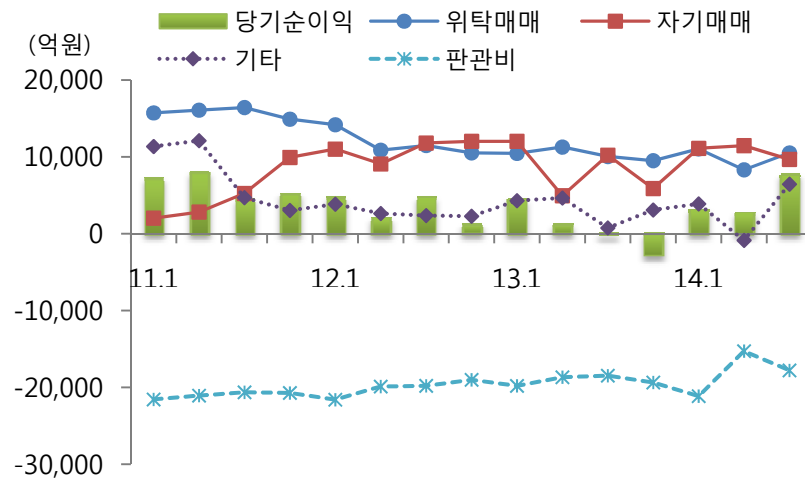
- 금융전업그룹/전업계 PEF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완화 등
-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실질적 상장 허용 및 M&A 관련 제도·세제 지원

# 2015년 증권업 이슈(1) : 수익성 회복

## ❖ 2014년 하반기 들어 증권사 ROE가 회복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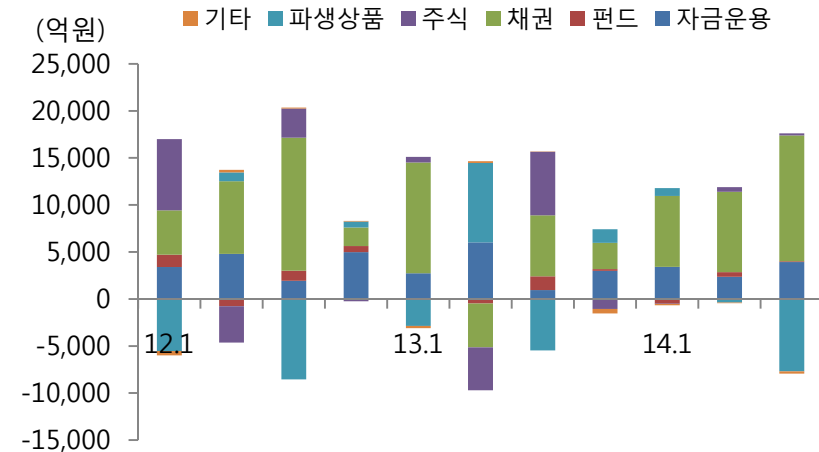
- 비용절감, 자기매매수익 증대 및 투자은행 부문 등의 실적이 개선된 데 기인
- 자기매매 부문 수익은 증권사 보유 채권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부문 평가이익이 늘어났기 때문
- 비용조정효과는 당분간 지속되며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자기매매 수익에 비해 안정적인 수수료수입의 증대가 관건

증권사 당기순이익 분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사 자기매매부문 순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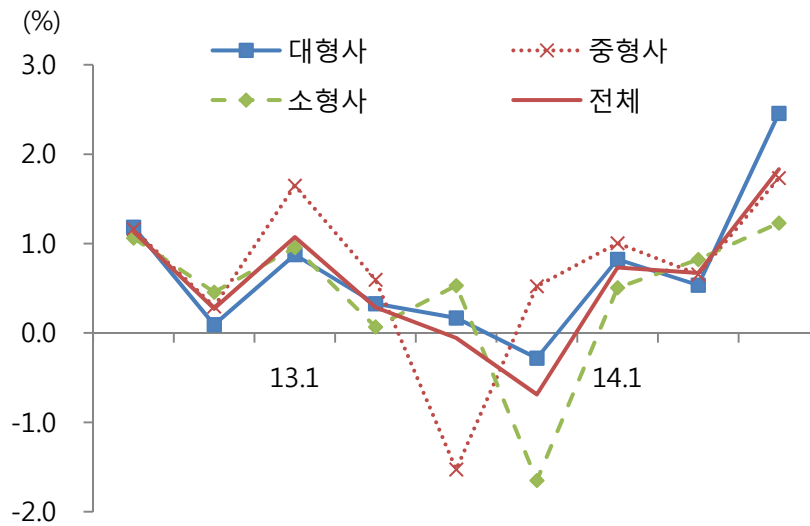


# 2015년 증권업 이슈(1) : 수익성 회복

## ❖ 증권사 규모별로는 대형사의 ROE 회복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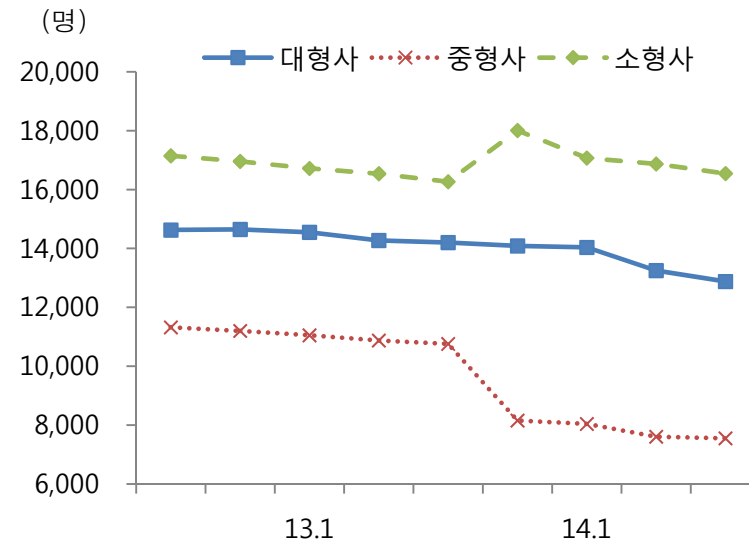
- 중형사 인력조정이 주로 2013년에 이루어진 데 비해 대형사 인력조정은 2014년 상반기에 실시
  - 하반기부터 대형사의 비용절감효과로 나타나기 시작
- 소형사의 경우 위탁매매 수익의 부진, NCR 규제개편 및 단기자금시장 개편정책에 따른 자금 조달비용 상승 등이 겹쳐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

증권사 규모별 ROE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사 규모별 임직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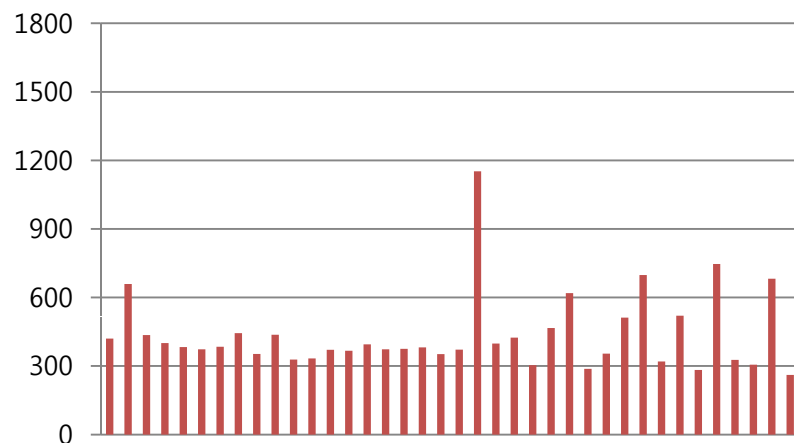


# 2015년 증권업 이슈 (2) : NCR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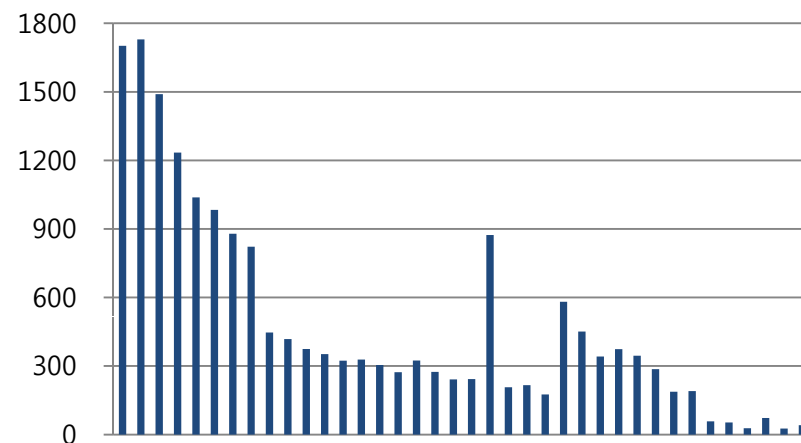
## ❖ NCR 개편 : 2015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6년에 전면 실시될 예정

- 미국 SEC NCR을 벤치마크한 필요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되며, 연결 NCR기준을 새롭게 도입
- 산업재편의 가능성: 대형사는 위험투자 여력의 증가로 사업규모 확대나 신규사업 진출에 용이해진 반면 중소형사는 증자, 일부 라이선스 반납, M&A 등의 선택과 주력사업 집중을 통한 특화가 불가피
  - 새로 도입되는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투자여력 확대 효과가 감소하거나 중소형사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영업용순자본비율 (구 NCR)



순자본비율 (신 NCR)



주: '14.9월 기준. 국내증권사 자기자본 순. 비엔지증권, 한맥투자증권 제외.

# 2015년 증권업 이슈 (3) : 핀테크

## ❖ 핀테크(Fintech)는 Finance와 Technology의 융합으로 기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 서비스를 IT기술로 제공하고,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을 만들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
- 핀테크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로 핀테크 투자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2008년 9.3억 달러(2008) → 2013년 29.7억 달러(2013) → 90.0억 달러 예상(2018)
  - 투자분야는 지급결제(30%), 은행업(28%), 금융투자업(26%), 데이터분석(14%)

## ❖ 2015년 핀테크는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핵심 추진사항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인터넷뱅크 설립 논의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핀테크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등 금융규제 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핀테크에 대한 국내 투자 활성화와 다수 핀테크 스타트업의 출현도 예상
- 국내 증권업계도 핀테크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고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
  - 핀테크는 기존 증권업 고유분야의 고도화 또는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
  - 핀테크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업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증권업 이슈 (3) : 핀테크

❖ 해외의 경우 핀테크는 금융투자산업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해외 금융투자업 핀테크 기업 사례

금융투자산업 분야	핀테크 적용사례	관련 핀테크 기업
자산관리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 자산운용 기업을 활용해 고객층을 확장	Wealthfront Betterment
위탁매매	빅데이터를 활용해 테마 투자전략을 소액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영업방식	Motif Investing
데이터분석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Markit
인터넷뱅크	미국 최대 온라인 뱅크로 온라인 전용 증권회사에 의해 설립	Charles Schwab Bank, E*trade Bank
유통시장	다양한 유가증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숨어있는 시장을 활성화시킴	SecondMarket
기타	청산결제, 크라우드펀딩 등 여러 증권업 분야에서도 핀테크 접목사례가 출현하고 있음	



# 2015년 증권업 전망

## ❖ 2015년 증권업은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구조 및 영업전략의 변화가 예상

- 증권업 수익성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며 소폭 개선 전망
  - 구조조정에 따른 판관비의 절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은 정체
  - 거래대금 및 수수료율의 추세적 안정화 및 개인투자자 매매비중 소폭 증가
  - 2014년 금리하락에 따른 보유채권 평가익 및 운용수익의 지속 여부 관련 불확실성
- 자본금 규모별 대응전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대형 IB는 자본활용도 증가를 위한 사업구조 조정
  - 중소형사는 순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자본력 확충 또는 사업규모 변경
- 사업부문 별로는 회사별 중점전략 사업부문의 강화 예상
  - 자산관리 부문 강화 및 퇴직연금 시장 공략
  - 자본활용도 개선효과가 높은 IB연계 기업신용공여
  - 해외진출 및 해외법인 영업 강화 등
- 증권업계 구조조정의 지속
  - 일부 증권사 중심으로 인력 및 점포의 축소 지속
  - 현대, KDB대우, 리딩, 이트레이드 증권 등 M&A 매물

---

## II. 자산운용업 전망과 주요 이슈

---

# 2015년 규제 환경

## ❖ 사모펀드 legal risk

- 사모펀드 개편안 도입시 펀드시장 전반의 재편가능성
  - 특히, 사모펀드 투자자제한으로 일반증권형 사모펀드시장 불확실성 증대
- 일반증권형 사모펀드의 경우 단독사모펀드 금지제도 시행의 영향도 크게 받을 가능성
- 사모펀드개편안, 단독사모펀드 금지로 투자자금의 일임, 금전신탁시장 등의 관심 증대

## ❖ 공모재간접헤지펀드 출현 가능성

- 사모펀드 편입하는 공모펀드 출현, 공모재간접헤지펀드 등장 가능성

## ❖ 새로운 플랫폼 도입

- ISA, 금융상품자문업, 복합점포, 핀테크 따른 온라인 개방형 채널 등으로 펀드 판매채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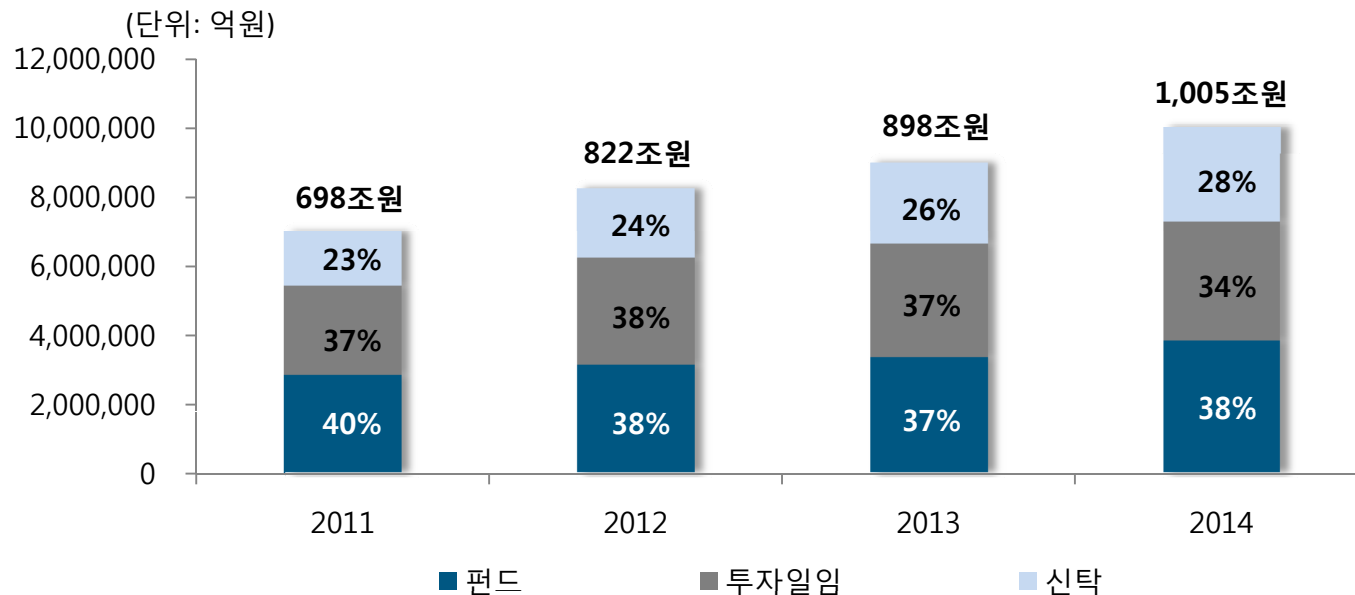
# 2015년 자산운용시장

## ❖ 자산운용 AUM 연간 약 100조원씩 성장

- 펀드, 금전신탁 성장세가 지속되며 자산운용 AUM 전년비 12% 성장
  - 2014년 펀드 379조원, 일임 346조원, 금전신탁 279조원

## ❖ 2015년에도 저금리, 기관의 대체투자 등으로 10% 대 성장지속 전망

국내 자산운용시장 수탁고 추이



주 : 1) 신탁은 금전신탁  
2) 2014년 신탁은 10월 말 금액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 2015년 펀드시장: 스타일

## ❖ 2014 펀드 순자산 48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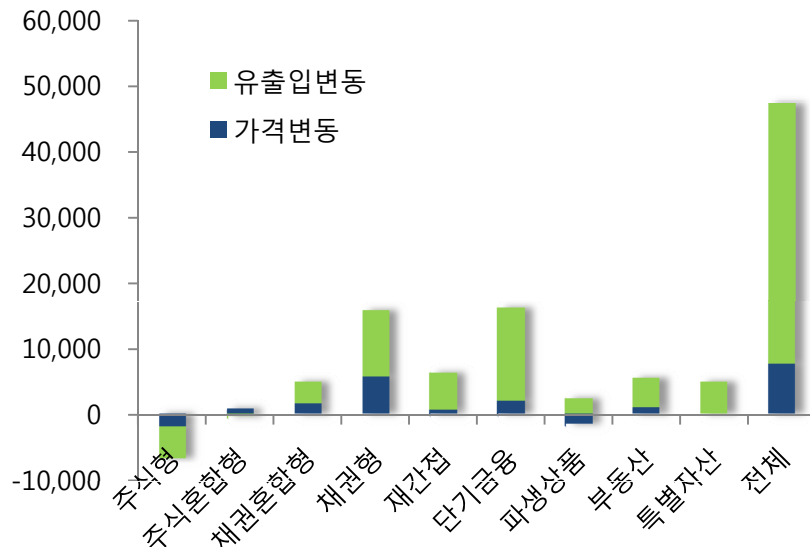
- 순자산 증가는 박스권장세로 valuation 증가 보다 자금유입 증가에서 비롯
- 공모 주식형 순자산은 액티브(-5%), 인덱스(-2%) 모두 감소한 반면, 사모특별자산, 부동산 등의 순자산은 크게 증가

## ❖ 2015년 사모대체투자펀드 중심의 펀드 순자산 성장세 지속 전망

- 사모펀드 개편안, 기관투자자 대체투자 증가 등의 영향

펀드 NAV 변동요인 분해(2014)

(단위: 십억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주요 유형별 순자산 변동(2014)

(단위: 조원, %)

	순자산 (조원)	순자산 증감률 (%)
공모국내주식전체	59.4	-5.31
공모국내주식인덱스(K200인덱스)	14.8	-1.5
공모국내절대수익추구형	2.7	0.25
공모해외글로벌주식전체	1.4	-0.02
공모유럽주식	0.7	0.05
공모글로벌신용국주식	1.7	-0.39
공모일본주식	0.2	-0.03
공모중국주식	7.4	-0.88
사모기타특별자산	96.2	11.85
사모절대수익추구형공모주하이일드	2.2	0.49
사모국내채권	46.1	-1.52
사모해외글로벌헤지	1.5	-0.02

자료: 제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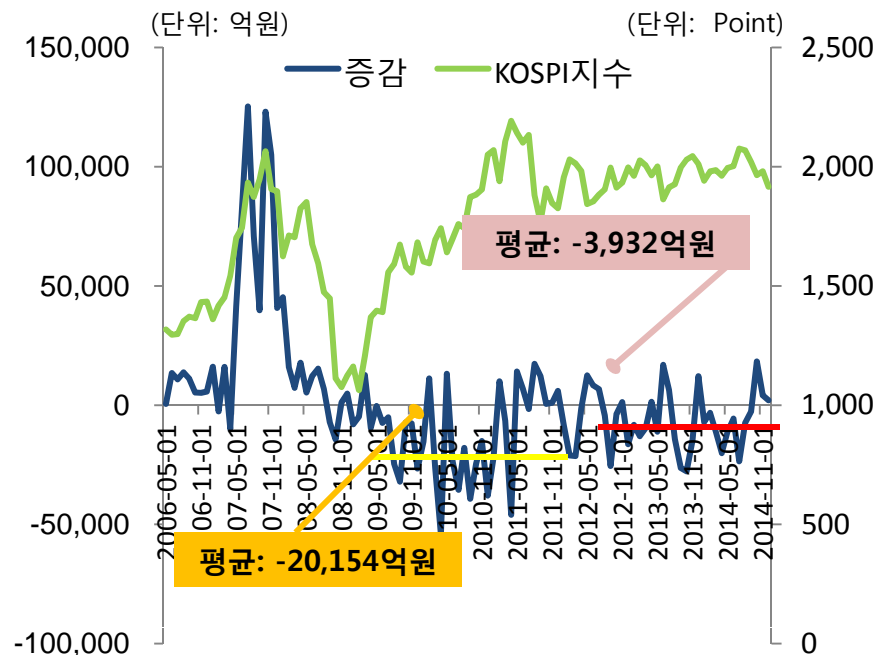
# 2015년 펀드: 수급\_개인투자자

## ❖ 주식형 펀드 순유출 지속

- 박스권 주식장세 이어진 2012년부터 월간 3,900억원 순유출 지속
- 2012년 이후 1,900선 이상에서 순유출 패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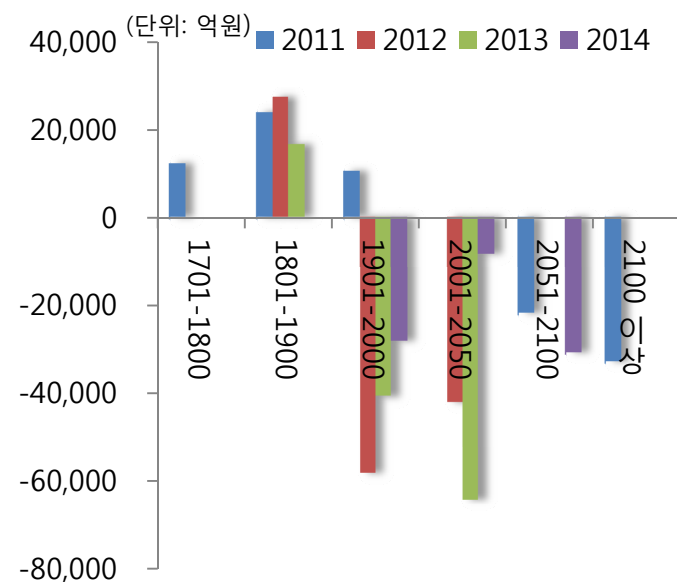
## ❖ 2015년 펀드플로우 박스권 흐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듯

공모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공모주식형 펀드 매매패턴 분해



자료: 금융투자협회

# 2015년 펀드: 수급\_퇴직연금

## ❖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 비중 6%

- 펀드비중 높은 DC 비중 증가하며 퇴직연금 전체 펀드 비중도 1%p 증가

## ❖ 2015년에는 중기퇴직연금기금 등으로 DC형 증가하며 펀드 편입비중 증가 전망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잔액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6
DB	37.5	49.7	60.7	60.5
DC	8.1	12.0	16.9	19.0
IRP 기업	0.6	0.7	0.7	0.7
IRP 개인	3.7	5.0	6.0	7.3
전체	49.9	67.3	84.3	87.5

퇴직연금 유형별 펀드 편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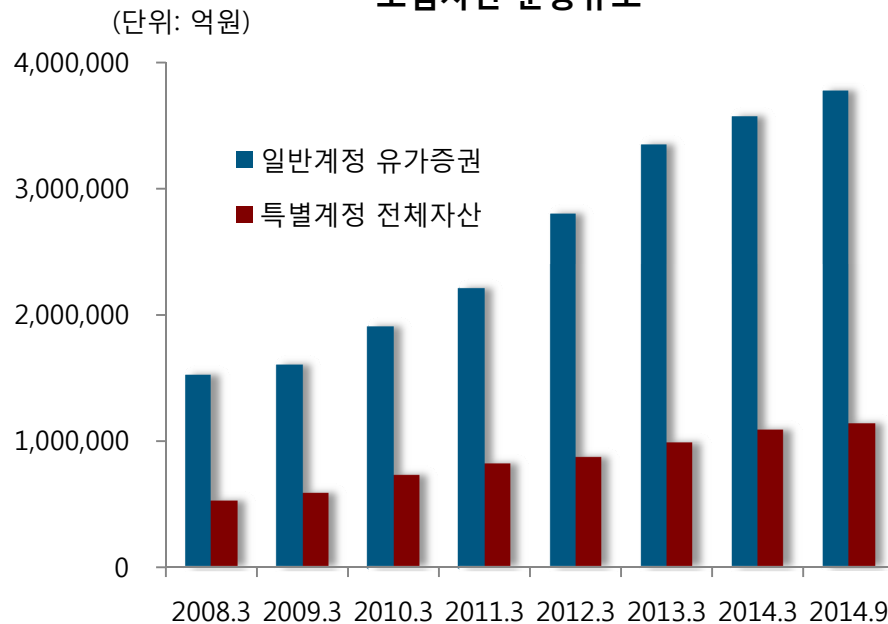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전체	10%	8%	6%	5%	5%	5%	6%
DB형	4%	3%	2%	1%	1%	1%	1%
DC형	27%	25%	24%	22%	20%	20%	19%
IRP기업	14%	13%	11%	11%	10%	9%	9%
IRP개인	6%	6%	5%	6%	6%	9%	9%

자료: 고용노동부

# 2015 일임: 보험자산 및 국민연금

- ❖ 보험, 채권 및 주식, 대체투자 편입 증가세 2015년도 지속 전망
  - 고령화 따른 연금 및 보장성 보험 성장세 지속 따른 준비금 증가
- ❖ 국민연금: 국내주식 및 대체투자 일임자산 증가세 지속 전망
- ❖ 사모펀드개편안, 단독사모펀드 금지로 개인 일임 수탁고 증가 전망

보험자산 운용규모



주 : 생명보험자산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2015년 국민연금 자산배분 및 위탁운용 계획

(단위: 조원, %)

구분	2015년 계획안		2015년 위탁운용		2014.9월 말 위탁규모 유지 시 (비중)
	전체 규모	비중	목표 범위(%)	목표 금액	
금융부문계	532	100.0			
국내주식	106	20.0	45~65	48~69	54(51%)
국내채권	281	52.9	10~14	28~39	31(11%)
해외주식	62	11.6	70~90	43~56	48(77%)
해외채권	21	4.0	50~70	11~15	12(56%)
대체투자	61	11.5	65~95	40~58	49(79%)

주 : 1) 단기자금 포함

2) 국내와 해외 대체투자비중은 각각 6.0%, 5.5%이며, 대체투자 세부 자산은 총 대체투자 규모 내에서 상호 조정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 2015년 자산운용업 이슈 [1]: 상품자문업 도입

## ❖ Fintech로 금융상품 제판분리 압력 증가 전망

- 온라인 복합점포 필요 커지는 가운데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금융상품 플랫폼 출현 기대

미국 투자자문사 비즈니스라인 구성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전체 자문업자 (개)	7,322	7,852	8,614	10,446	11,257	11,539
Financial Planning (%)	29.6	34.8	36.8	36.6	40.2	40.9
PM for Individuals/Small Buss. (%)	68.1	74.7	74.7	72.3	74.7	75.6
PM for Investment companies (%)	18.6	18.8	16.7	13.6	13.2	13.6
PM for Buss. Or Institutional Clients (%)	55.2	62.0	63.1	63.1	63.1	63.7
Pension consulting (%)	13.0	15.8	16.6	15.8	16.9	18.1
Selection of other Advisers (%)	18.0	24.4	27.2	28.3	30.5	31.1
Publications (%)	6.3	7.4	7.7	6.9	6.4	6.6
Security Ratings or Pricing (%)	0.4	0.5	0.5	0.5	0.4	0.4
Other (%)	11.7	15.5	19.0	24.0	24.5	25.4

# 2015년 자산운용업 이슈 [2] : 퇴직연금 활성화

## ❖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및 포괄주의 규제

- DC는 공모펀드, DB는 사모펀드까지 허용

## ❖ 모든 퇴직연금 유형에 대해 세액공제 300만원 추가 공제

- 세액공제율 확대, 부분인출 허용 될 경우 DC, IRP 시장 확대 전망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방향

		DB	DC	비고			DB	DC	비고
직접투자자	지분증권	O	X	출자지분 포함	간접투자자	지분증권	O	O	
	채무증권	O	X			채무증권	O	O	
	파생결합	O	O	최대손실 40% 이내		파생결합	O	O	최대 손실 40% 이내
	실물자산	X	X			실물자산	O	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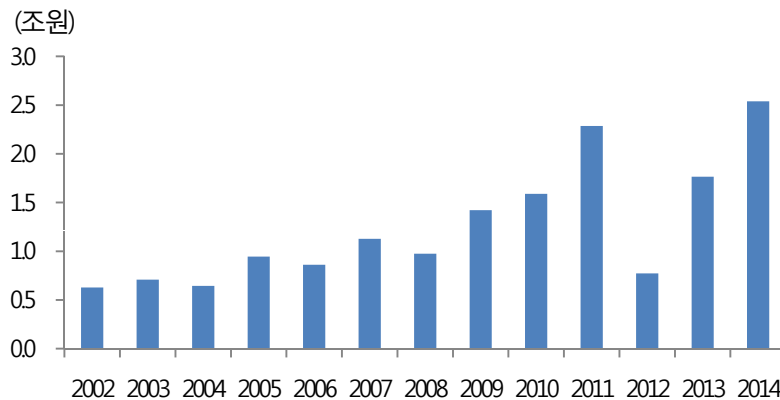
### III. 벤처캐피탈 및 PEF 전망과 주요 이슈

---

# 2015년 VC 시장 : 자금모집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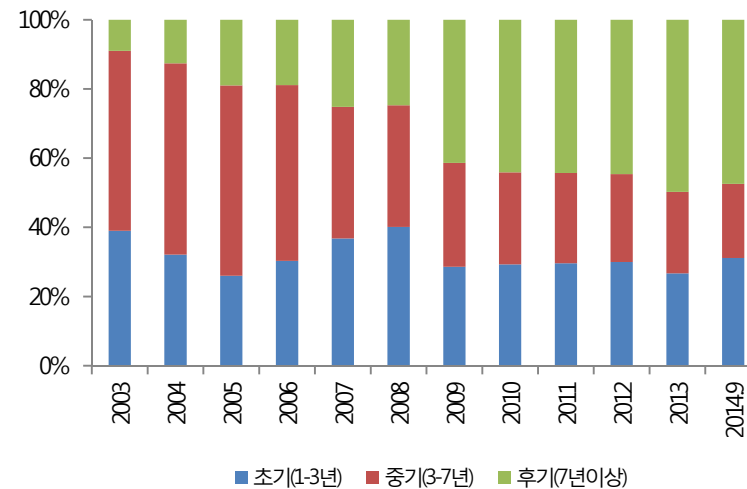
- ❖ 2014년 VC 자금모집은 2013년의 성장세를 이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
  - 2014년 VC 신규 자금모집은 전년 대비 61.9% 증가한 2조 5,382억원
    - 민간출자는 1조 5,177억원으로 2013년 8,599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업력별 신규투자에서 2014년 창업초기기업의 비중이 31.1%로 전년대비 4.4%p 증가 하였으며, 중기기업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 2015년 VC 시장 자금모집은 신규 정책자금 집행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연도별 VC 자금모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연도별 업력별 투자비중(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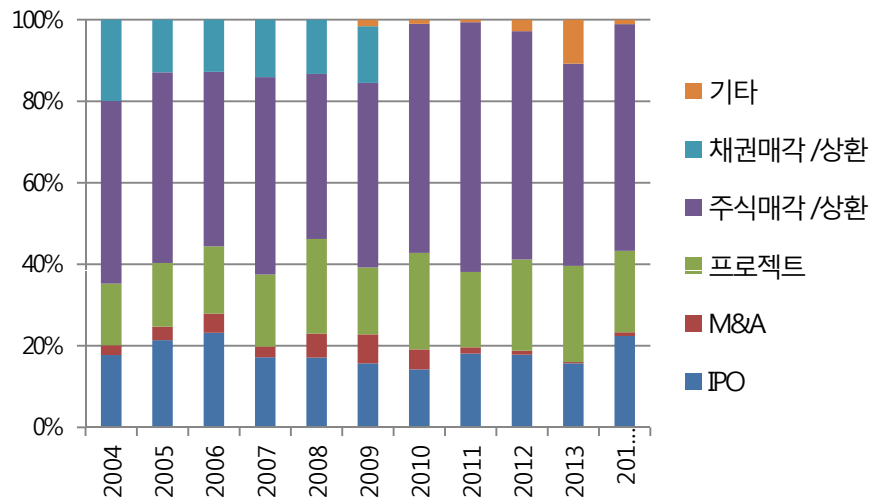


# 2015년 VC 시장 : 회수

## ❖ 2014년은 코스닥 IPO의 증가로 VC 회수시장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점진적 개선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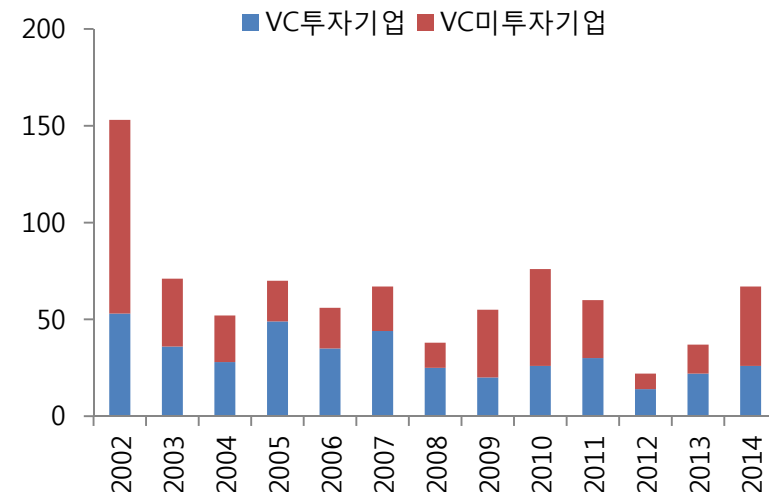
- 2014년 코스닥 IPO는 67개사로 2013년 37개사 대비 크게 증가
- 그러나, 아직까지는 코스닥 IPO는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며 M&A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
  - 2014년 3/4분기 기준 M&A와 IPO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9%와 22.4%
- 코넥스의 경우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며 정책성 세컨더리 펀드를 중심으로 일부 세컨더리 시장도 조성

국내 회수시장별 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국내 코스닥 연도별 IPO 건수



주: VC투자기업은 스펙과 재상장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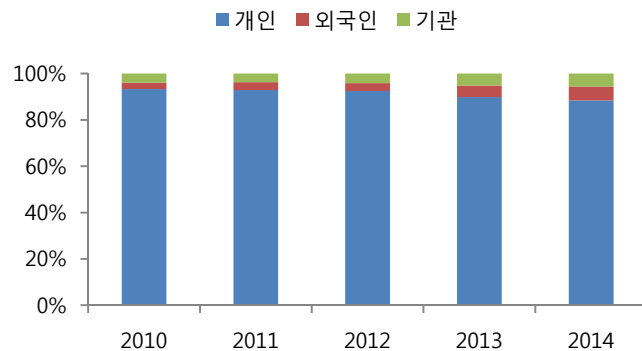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2015년 VC 시장: 코스닥 및 코넥스

## ❖ 2015년 코스닥 IPO 시장은 전년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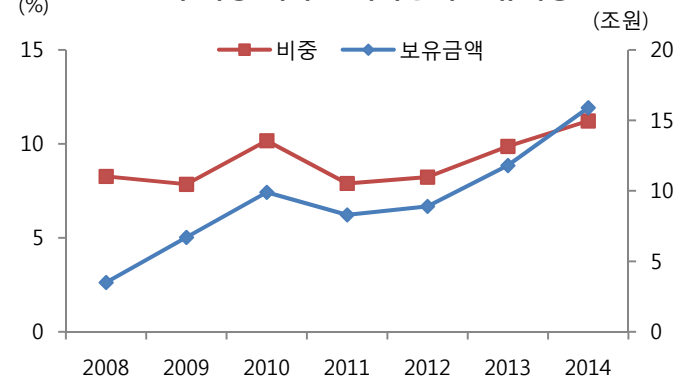
-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의 원인은 추세적 현상
  - 헬스케어/바이오,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한 성장 벤처기업의 코스닥 IPO
  - 2013년 이후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확대와 매매비중 증가
- 정부의 상장 활성화 정책의지 및 거래소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 추진 예상
  - 상장활성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과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코스닥 시장 투자자별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KRX)

코스닥 시장 외국인 시가총액 보유비중



## ❖ 2015년 코넥스 시장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일임형 랩의 예탁금 규제 완화(3억->1억) 및 매매방식 변경으로 유동성 제고 예상
- 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제도의 실시

# 2015년 VC 시장 : 정책 및 규제환경

## ❖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속적 정책자금의 투입 (5개부처 합동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 2015.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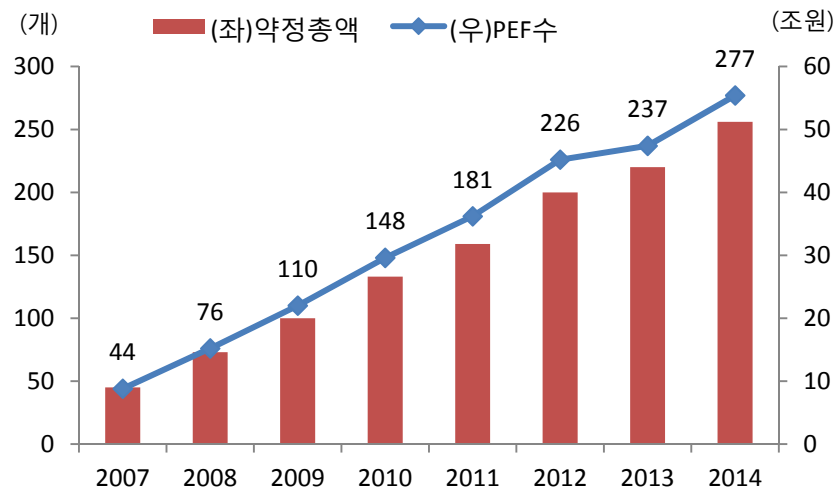
- ‘벤처·창업자금 순환 단계별’로 2조원의 벤처펀드를 확충
  - 마이크로 VC펀드(600억원), 중국진출펀드(5,000억원), 외자유치펀드(1,000억원), 세컨더리 펀드(3,000억원), 선배벤처인 청년창업펀드(1,000억원)
- 기업의「창업-성장-회수」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원 집행
  -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6,000억원) 조성
  - 중기 M&A펀드 조성(3년간 1조원), 중기M&A 특화 증권사(IB) 육성 및 K-OTC 2부 신시장 조성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확대
-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2015년중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 산은 63조원, 기은 56조원, 신보 41조원, 기보 19조원
  -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공급
-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3.0’ 추진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3,000억원)하여 기술기반 투자 확대
  - 신규 IP펀드 조성(1,000억원 이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

# 2015년 PEF 시장 : 자금모집

## ❖ 2015년 PEF시장은 PEF 결성액 기준으로 2014년 대비 완만한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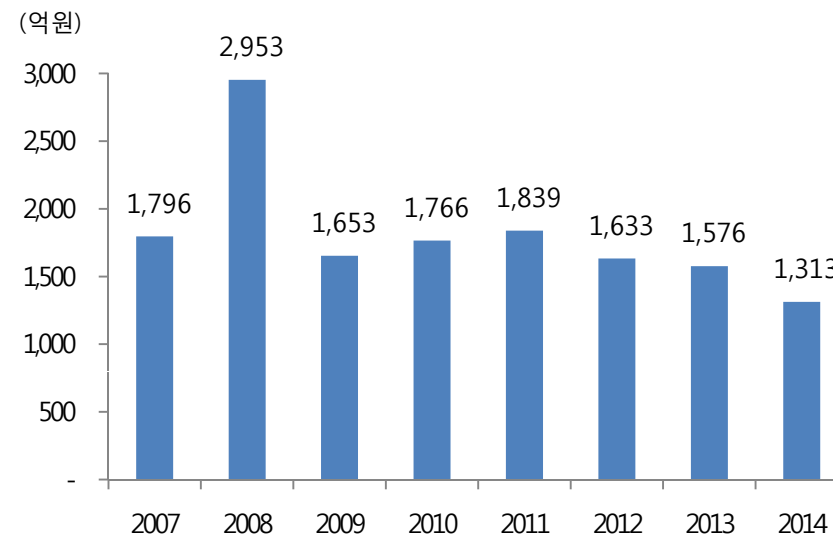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 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말 현재 총 277개, 약정액 기준 총 51.2조원의 PEF가 결성
- 블라인드 펀드의 비중이 줄고 프로젝트 펀드가 증가하면서 평균 PEF 규모 감소 추세

연도별 국내 PEF 시장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연도별 평균 PEF 설정 규모





# 2015년 PEF 시장 : 투자 및 회수

## ❖ 2015년도는 (1)잔여 공기업 민영화, (2)대기업 구조조정, (3)증권사 구조조정, (4)PEF 매각 매물 등 M&A 매물 대기로 M&A 시장 성장 예상

-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동부 및 현대그룹,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C&M, 금호고속 등
- PEF를 통한 국내 M&A 시장 활성화 정책 및 세제·제도적 지원
  - M&A 활성화 방안(14년 3월) 및 2015년 경제정책방향(14년 12월)

## ❖ 2015년 PEF는 M&A 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활약이 예상됨

- 2014년 하반기는 대기업 구조조정 매물로 인해 대형 PEF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며 충분한 미투자 유동성 보유
- 대기업그룹 비핵심 자회사 또는 사업부의 자발적 매각 분위기
- 2014년 일부 투자의 부실화로 국내 PEF는 운용역량의 한계를 노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성장통으로 평가
  - 경영권 지분 확보의 중요성 및 풍부한 산업·운영경험을 갖춘 인력 부재
- 국내 대기업과의 콘소시엄 투자를 통한 운영리스크 감소 노력

## ❖ 바이아웃 PEF의 회수시장 성장은 아직까지 기대 난망

- 대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으로의 Trade sale 보다는 PEF에게 투자기회를 제공
- 회수방식으로서의 세컨더리 시장 미성숙과 PEF 회수방식으로서 IPO의 한계